



CEO Brief

2022.07. 제2022-10호

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.

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

요 약

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2022년 하반기 보험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특히 저축·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따라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1.7% 증가에서 1.9% 감소로 수정 전망하며,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기존 4.9% 증가에서 4.6% 증가로 수정 전망함

- 2021년 가을에 전망한 경제환경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경기회복, 금리의 점진적 상승 등이었으며, 2020년 코로나19의 반사효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보험산업은 기저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와 함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되었음
 - 2022년 생명보험 성장률은 1.7%로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었으며, 손해보험은 4.9%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었음
- 그러나 2022년 들어 코로나19 이후 국제 공급망이 정상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,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급등 및 금융시장 혼란,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은 급격히 악화됨
 -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제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,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,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함
 -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은 2022년 1월, 4월, 5월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한 후 7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0.5%p 인상을 단행하였고, 금융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됨
 -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수요 위축을 통해 물가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각국 경제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음
-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2022년 하반기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저축·투자형 상품을 취급하는 생명보험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임



CEO Brief

-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은 약화되고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로 저축여력 또한 위축될 것으로 보임
 -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 성장성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,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장성보험 수요 또한 축소될 수 있음
 - 손해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비중이 크지 않고 투자형 상품을 취급하지 않아 시중금리 급등의 영향이 크지 않으나, 전반적인 경기 위축은 기업성보험 성장에 부정적임
-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1.9% 감소가 전망됨
- 보장성보험은 질병 및 건강보험 판매 확대, 종신보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유입으로 전년 대비 3.7% 성장이 전망됨
 -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기존 저축보험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에도 불구하고,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경쟁력 약화,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축소로 전년 대비 7.2% 감소가 전망됨
 -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생명보험회사 RBC비율이 하락하면서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신규 판매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신규 판매 감소와 해지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.0% 감소가 전망됨
 - 생명보험 퇴직연금은 2021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가 마무리되면서 2022년에는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
-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실적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.6% 증가가 전망됨
- 2022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.2% 증가가 전망됨
 - 2022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하,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1.3%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 - 2022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, 해상보험, 보증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년 대비 6.8% 증가가 전망됨
 - 손해보험은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

김세중 연구위원
sjkim@kiri.or.kr